



제40회 금산인삼축제

錦山人蔘



2022.8.31
ISSUE NO. 7

금산이 Geumsan
뿌리입니다 Ginseng

2022.9.30(금) - 10.10(월)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금산군



금산축제관광재단

“인삼 산업 힘찬 도약, 반드시 이룰 것” 김태흠 지사,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지 금산서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등 제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지인 금산군에서 ‘인삼 산업의 힘찬 도약’ 등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16일 금산군을 방문한 김 지사는 박범인 군수와 환담자리에서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기자간담회와 의회 방문에 이어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군수는 주요 현안으로 △국지도 68호선 금산-논산간 4차선 도로 확장 △국도 17호 및 군도 12호 도로 개선을 건의하고, 금산인삼 세계화 프로젝트 등 미래발전 전략을 내놨다.

국지도 68호선은 충남 내륙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이나 해당 구간의 교통량은 지난해 기준 일 3161대 수준으로, 일 7300대(D수준)인 4차로 확장 검토 기준에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우선 차로 불일치(4-3-4차로)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인 금산읍-양전 교차로 0.4km구간부터 4차로 확장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금산읍과 금성면 연결지점인 양전교차로-금성면 2.8km 등 주요 구간은 교통량 변화 추이 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답했다.

국도 17호 설계 종점부(복수교차로-곡남교차로) 4차로 확장은 국도와 접속 구간인 0.2km는 도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0.16km는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지방도 635호와 군도 12호가 교차하는 지점의 입체교차로(백암리) 설치의 우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통로 박스를 설치한 뒤 경제성, 교통량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미래발전 전략과제로 제시한 △금산인삼 세계화 프로젝트 △미래농업교육복합관조성 △인삼약초 종합타운 조성 △대규모 산업기반 마련 △의료기관 인프라 확장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군과 세부계획 협의 후 도 소관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겠다”며 “중앙부처나 국회 등에 건의할 사항은 적극 대응해 관철하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민 500여 명과 다락원 생명의집 대공연장에서 진행한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인삼 산업의 재도약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금산은 인삼 산업의 재도약, 농촌과 관광·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인삼 생산기반 강화, 지방소멸 대응 등 당면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인삼산업 진흥 및 고려인삼 전략산업 육성, 기업·농가 경영환경 개선을 주도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독립승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군민들은 건의사항으로 △금산을 아인1,3리 공영 주차장 설치 △봉황천보 가동보로 교체 △진산면 행정리 탐방로 정비 △복수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을 요청했다.

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신속히 검토 후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충남의 해결사로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능력과 경험을 바치겠다”며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 지방균형발전과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조금 더 군민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금산의 힘찬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충청남도]

박범인 금산군수, '매력적인 인삼 수도' 구체적 정책 지시

민선 8기 새 비전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스마트팜 육성, 외국인 근로자 확보 등 점검



박범인 금산군수는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민선 8기 새 비전과 5대 목표를 구체화해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결정됐고 새로운 비전이 잘 구현될 때 세계 속에 빛나는 금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산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새 비전을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로 정하고 △찾아오는 매력도시 △중흥하는 경제도시 △건강힐링 행복도시 △세계속의 인삼수도 △신뢰받는 희망군정 등 5대 목표를 설정했다.

박 군수는 올해 금산인삼축제에 관해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방침이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해 보고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축제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전국의 우수사례를 확인해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외국인 근로자 확보, 스마트팜 육성, 금산다락원 스포츠센터 관리 등 업무에

도 차질 없이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산군은 8일 기존 청사 정문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비전 간판을 설치했다.

설치된 간판에는 군의 새로운 비전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가 새겨졌다.

이날 군청 정문 앞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박범인 금산군수, 정옥균 금산군의회 부의장, 김복만 충청남도의회 제1부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판 디자인은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금산에 살아 리랏다', '하늘 선물 금산인삼' 등 금산과 관련된 작품을 선보인 목판화가 이철수 선생의 작품이 활용됐다.

이 선생은 간결하고 단아한 그림과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 전통적 회화를 현대적 판화로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오늘은 민선8기 새 비전을 선포하는 의미있는 날”이라며 “과감한 도전을 통해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며 군정의 폭을 넓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로 비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비전이 잘 구현돼 세계 속에 빛나는 금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산군]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생명의 고장 금산
세계로 미래로

2022 국제 인삼 교역전

2022
INTERNATIONAL
INSAM
TRADE FAIR

2022. 9. 30 (금) - 10. 10 (월)

금산인삼축제장

주최  금산군

주관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Geumsan Ginseng & Herb Development Agency



충남경제진흥원, 금산인삼약초 해외시장개척 지원 강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공동 마케팅 MOU체결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원장 오광옥)과 금산인삼약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8월 5일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3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산인삼약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업무협약은 ▲인삼제조가공업체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금산군 소재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FTA컨설팅 및 교육지원 ▲상호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정보교류, 공동 마케팅 추진 등 금산군 소재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금산군 관내 인삼기업을 위해 국내외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기업의 해외 수출 역량강화, 시장 수요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도내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뉴델리와 자카르타 등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여 기업의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금산군 관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화에 발맞춘 금산인삼의 브랜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수 진흥원장은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금산인삼 수



출경쟁력제고를 위해 충남경제진흥원과의 업무협약으로 해외 수출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해 국내 판로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 개척에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협약식 후, 충남경제진흥원 오광옥 원장은 금산수삼센터를 방문해 금산인삼약초산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으며,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석곤 의원의 안내로 관내기업을 방문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향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금산인삼수출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장개척, 우량바이어 발굴, 할랄 해외시장 인증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제40회 금산인삼축제(개최기간 9. 30. ~ 10. 10.)기간 동안 FTA홍보 및 현장컨설팅 부스를 운영하며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홍보마케팅팀 최대영]

금산인삼, 베트남 125만불 수출 달성 3년 만에 해외 수출상담 재개..... 수 많은 인파 몰려 해외 소비자, 금산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군 위해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사장 박범인)은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2 베트남 호치민 식음료전시회(2022 Vietfood & Beverage)”에 관내 기업 9개소와 함께 참가하여 125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맺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참가한 이번 베트남 식음료 전시회에서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의 바이어와 총 79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총 상담액 763만불 ▲협약금액 418만불 ▲현장 계약 125만불의 성과와 ▲수출계약 MOU 11건 등의 성과가 창출되었다.

이외에도 진흥원은 베트남 현지 대학생들을 활용한 다양한 금산인삼 브랜드 마케팅 협력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베트남 호치민 재정경제대학교 한국어학과와의 금산인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신규 유통시장으로 분류되는 베트남의 ▲메디컬시장과 ▲뷰티시장 ▲소재시장 등의 베트남 바이어 개척으로 비식품시장 유통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진흥원은 행사 이후에도 하노이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원하는 기업에게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베트



남 통상사무소 연계 협력지원으로 통역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귀국한 기업에게는 바이어 화상상담회를 통해 사후 상담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전시전 수출상담회에 방문한 바이어 중 금산 방문을 희망하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9월30일부터 10월10일까지 열리는 금산인삼축제에 초청하여 사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관내 업체의 베트남 수출을 돕고 유통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유통시장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코로나19, 소득수준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베트남 소비자의 식생활개선과 기호변화, 소비와 유통패턴의 변화로 새로운 유통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금산인삼의 해외 유통시장 진입과 확대 조건으로 관내업체의 품질관리, 수출인증확대, 포장·디자인·제형개선, 소재융합상품 등 다양한 상품성 개선이 필요하며 프리미엄 제품 등의 시장 차별화가 베트남 등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필수 상품 조건으로 분석했다.

진흥원은 금산인삼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잠재 시장 개척 홍보를 위해 오는 10월에는 프랑스 Sial 파리 식품전과 11월에는 UAE 두바이 ISM Middle East 전시회에 참가한다.

올해 추진되는 금산군과 진흥원의 금산인삼 해외 마케팅 지원은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관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홍보마케팅팀 박종복]

GAP인삼 공동선별 추진으로 유통 소비촉진 GAP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기업간담회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9일 오후 인삼제조기업들과 GAP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산군(인삼약초과)을 비롯한 금산인삼농협, 만인산농협, 관내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인삼농업인과의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GAP인삼의 유통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GAP인삼 공동선별사업은 인삼의 이력관리 및 위생적이고 청결한 GAP시설에서 선별, 포장 등의 수확후 관리작업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내 인삼산업의 위기 속에 인삼제조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브랜드를 강화하고, 농업인과 기업과의 직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를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국 GAP인증 보급률은 전체농가대비 10% 수준이나, 금산인삼농가는 30%이상이 GAP인증을 받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반인삼과의 가격 차별성이 거의 없이 거래되고 있어 GAP인증확대

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인삼의 안전성확보와 소비자 신뢰확보로 인삼소비촉진을 위해서는 GAP인증이 필수사항으로 금산군, 진흥원, 관내기업들은 GAP인증 확대 및 공동선별을 통한 유통체계 구축에 뜻을 같이하고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2년도 GAP인삼 공동선별 물량은 약 50톤 정도 처리될 예정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에서 금산인삼농협, 금흑(주), 대동고려삼, 농업법인 금석, 만인산농협에서 전량 구매하기로 합의하여 일반시세 대비 5% 추가 인센티브를 기업에서 지원하는 등 인삼가격 하락위기에 GAP농가는 걱정을 덜게 되었다.

올해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는 판촉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금산인삼농협과 만인산농협과 협력하여 대형유통사를 공략, 금산인삼의 소비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산인삼은 GAP인증을 받은 안전한 인삼’이라는 전략으로 인삼유통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GAP인증팀 김기태]

지역 인삼약초산업 판 키운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산림경영인 육성과 인삼, 약초, 산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약초, 산채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은 ▲ 인삼, 약초, 산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사업화 아이템 발굴 협력 ▲ 인삼, 약초, 산채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자문 및 인삼축제 홍보와 참여 ▲ 산림경영인 육성을 위한 현장학습 및 교육시설 활용 지원 등 상생발전을 도모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산림의 중요성 인식 및 인삼, 약초, 산채 산업의 발전과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니즈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축적된 교육 인프라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1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1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2022년도 제2기 교육 일정은 오는 19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2023년 7월까지 1년간 23회차, 160시간 운영된다.

교육은 월 2회씩 토요일에 진행하며, 정원의 설계와 디자인, 시공, 관리 등을 위해 전국의 정원현장을 활용하여 핵심 이론학습과 실습 및 사례습득 등 체험중심으로 운영된다.

한편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 조연환 전산림청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 및 산림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설립됐다. 산림청에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으로 그동안 산림최고경영자과정 등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 경영인을 1741명 육성했다.

[연구개발센터 김진성]

'인지기능 및 간질환 개선' 등 흑삼 품질표준화 선도 협력 흑삼산업활성화 및 제품다양성 확대 전략파트너십 강화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진흥원)은 26일, 경방신약(주)와 인지기능과 비알콜성 간질환 개선효능이 탁월한 ‘표준화 흑삼 소재제조 특허와 공정기술노하우’ 등 2건에 대해 양도 및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흑삼은 4세대 인삼제품 인식되어 급속히 제품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품질관리기준이 되는 지표물질과 성분함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차별적 효능 가진 고품위 인삼제품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등 관련산업 활성화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양측은 금번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협력 계약을 통해 국가표준화를 선도하며, 산업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제품공정기술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기능성제품 출시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술의 양도 및 전수과정에서 다양한 제품을 기획하고 시장개척과 관련한 진흥원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마케팅과 홍보부문의 협력네트워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김충환 경방신약(주) 대표는 “흑삼은 새로운 세대의 인삼제품이다. 우리회사는 한방제약기업으로 시작했으나, 향후에는 고기능성식품과 원료의약품산업시장에 본격적으로 사업부문을 확장하고자 한다”며, 금번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약을 통해 “건기식시장에 본격적인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연구개발센터 김진성]

금산 인삼  고국배송 특가세일

한가위 선물세트

고국에 계신 분께
정성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홍삼진액 마일드+ 발효 홍삼정과
106,000원 70ml*30포
40g*25뿌리 내외



고려 홍삼정 플러스
99,800원 250g*4 (4병*4)



홍삼&석류 젤리стик
99,800원 20g*60포



큰뿌리 홍삼정과
99,000원 800g



고려 홍삼정(1병)
83,000원 240g



감성 홍삼액(파우치)
80,000원 90ml*60포



홍삼진액 마일드+ 홍삼정 패밀리 세트
74,000원 70ml*30포
210ml+84ml



고려홍삼진액
68,000원 80ml*60포



내몸애 고려홍삼 스틱
56,000원 10ml*30포



감성 홍삼절편
28,000원 200g



고려 홍삼절편삼
27,000원 200g



감성홍삼차
23,000원 30g

금산인삼은 국내 인삼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1500년 고려인삼 전통의 명맥을 잇는
유서깊은 특산물입니다.

주문 및 문의

TALK

GlobalOKJA



주최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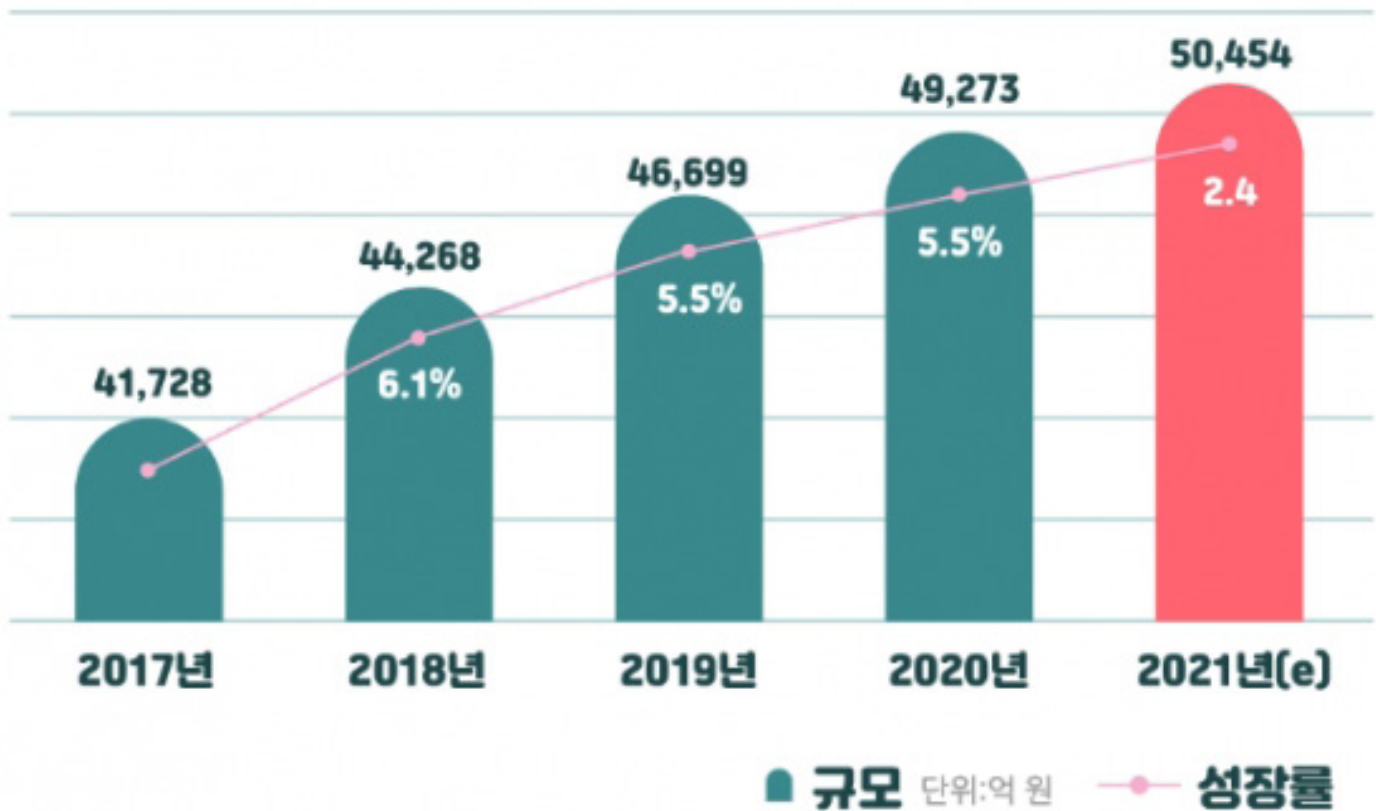
주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OVERSEAS KOREAN JOURNALISTS ASSOCIATION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움직임에...대기업들 "5조 시장 잡아라"

규제혁신 TF, 건기식 규제 완화 추진

유통사 건기식 자유판매·건기식 소분 판매 허용 골자
시장 활성화 전망에 마트·화장품·식품기업 잇따라 진출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



코로나19 유행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면서 활성화됐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건기식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경제 규제혁신 TF가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식약처와 함께 대형마트·백화점의 건기식 자유판매와 맞춤형 건기식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반 유통사가 건기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와 연 2회 영업자 교육 등을 필요로 한다.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 그대로 단순 판매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해도 된다는 것이 정부의 규제 개선안의 골자다. 현 신고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없앤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로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해지면 별도의 매장을 운영할 필요 없이 전 점포에서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당 규제 완화를 통해 영업신고 비용 1억7000만원이 절감되며 건기식 시장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도 추진한다. 현재 건기식 완제품의 소분 판매는 금지되어 있어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적용된 12개 회사, 86개 매장만 소분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및 건강상담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행위 허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건강상담관리사가 맞춤형 건기식 소분·조합과 안전·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 측은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을 통해 건기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편리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조' 시장 더 커질까... "너도나도 건기식 사업 확대"

규제 완화에 따라 건기식 판매가 용이해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유통업계도 건기식 사업 확대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7년 4조 1728억원에서 지난해 5조 454억원으로 20% 성장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구매액은 약 31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5조원에 달하는 건기식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대형마트와 화장품, 식품기업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건기식 PB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건기식 PB브랜드 '바이오퍼블릭(Biopublic)'을 론칭한 바 있다. 이마트는 향후 바이오퍼블릭 상품을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지난 2015년 론칭한 건기식 PB브랜드 '해빗(Hav'eat)'을 키우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해빗의 홍삼 관련 건기식 상품은 출시 이후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했다. 오는 25일에는 건기식 브랜드 '락티브'와 유아비타민도 출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도 PB 시그니처 브랜드를 통해 건기식 상품을 선보였다. 올해 1월 '시그니처 6년근 홍삼정'을 출시한 데 이어 지난달 '시그니처 매일 먹는 진짜홍삼'을 내놓았다. 현재는



홍삼 관련 제품만 판매하고 있지만 향후 건기식 관련 상품군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장품 사업의 부진을 겪었던 아모레퍼시픽은 건기식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건기식 브랜드 '바이탈뷰티'를 통해 '이너뷰티'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아모레퍼시픽은 5일 자체개발한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이 함유된 수면 질 개선 건기식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어 식품기업에서는 CJ제일제당이 자회사로 출범시킨 CJ웰케어가 맞춤형 건기식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농심은 지난 2일 첫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을 출시하며 브랜드 '라이필'을 종합 건기식 브랜드로 본격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풀무원도 지난해 말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융복합 건기식 제품을 누적 100만병 판매하며 건기식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융복합 건기식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일체형으로 만든 제품으로, 풀무원은 녹즙과 뚜껑에 정제 형태 건기식이 들어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해 콜마비앤에이치, 코스맥스엔비티 등의 건기식 ODM(제조자개발생산)·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도 수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애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건기식 시장은 브랜드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체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판매채널 및 판매형태 규제완화는 건강기능식품 OEM·ODM 사업환경에 우호적인 소식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관장, 중동수출 5배 늘었다

KGC인삼공사, 중동 시장 공략 가속화, UAE서 콘퍼런스 열고 판매자 전문교육



KGC인삼공사가 한국 홍삼을 중동에 알리기 위해 UAE(아랍에미리트)를 거점으로 삼고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다. KGC인삼공사가 UAE를 기반으로 정관장 제품의 중동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최근 UAE에서 '제 2회 KGC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고려인삼의 역사와 가치, 효능의 우수성, 정관장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UAE 내 '정관장' 브랜드가 입점된 대형 체인 약국 소속의 약사들이 참석했다. 중동지역은 국내와 달리 홍삼의 주요 판매 채널이 약국이기에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이 필수적이다.

UAE는 중동의 허브 국가로서 전 세계 모든 제품들이 중동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교두보이기에 KGC인삼공사는 그간 한국 홍삼의 중동 전역으로의 수출을 위해 UAE 시장 진출에 공을 들여왔다.

KGC인삼공사는 2020년 말 UAE 정부로부터 홍삼 농축액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홍삼 음료 등은 일반식품으로 등록 허가를 승인 받은 후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은 전년비 5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난해 중동 지역 최초로 개최된 세계적 박람회 '두바이 엑스포'에도 참여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동에서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가운데 한국관 행사장에 마련된 '정관장' 부스는 엑스포 기간 동안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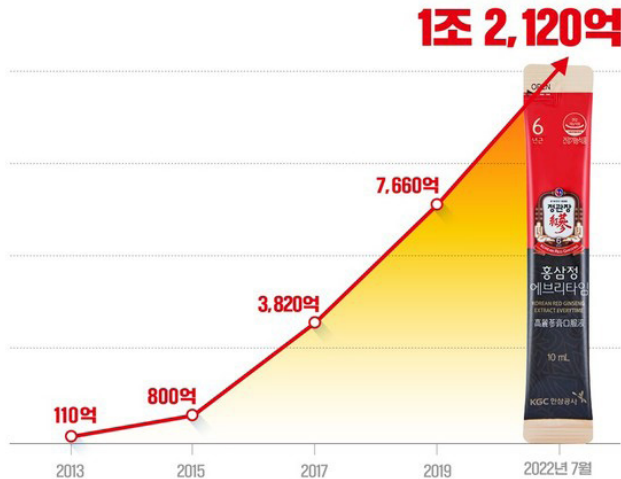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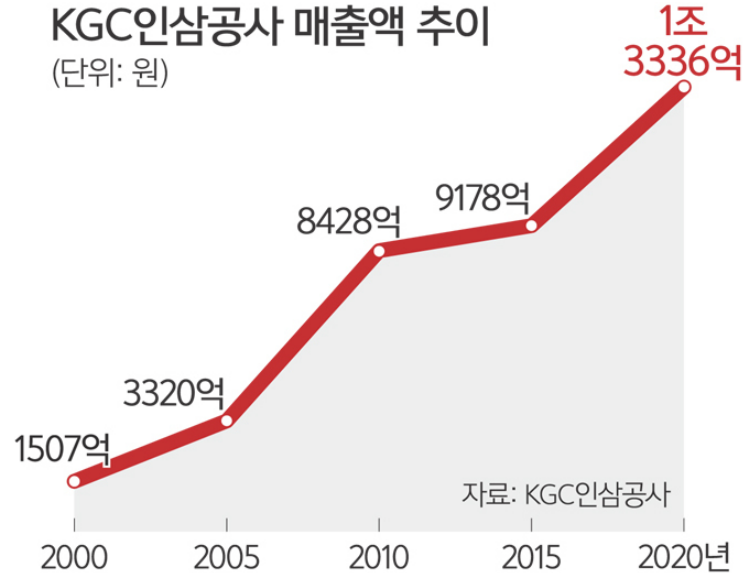
현재 UAE에는 Boots, Medicina 등 10여개의 체인 약국 200여 곳에 한국의 대표 홍삼 브랜드 '정관장'이 입점해있다. 이중 50개 매장에는 별도의 '정관장' 전용 스페셜 카운터까지 마련되어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특히 정관장의 대표 제품인 '홍삼정'의 인기가 가장 높다. 액상형 파우치 제품인 '홍삼원'과 여성들이 좋아하는 '홍삼담은 석류스틱' 등은 그 다음으로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홍삼의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시장에서 인기 있는 홍삼정 2012년 출시 이후 누적매출액 1조원 돌파

에브리타임 누적 매출액

(단위: 원)

KGC인삼공사 매출액 추이
(단위: 원)

한국인삼공사는 정관장 브랜드인 홍삼정 에브리타임의 누적 판매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다른 홍삼제품은 매출이 감소한 반면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삼공사에 따르면, 2012년 출시된 홍삼정 에브리타임의 누적 매출액은 올해 7월 기준 1조2,120억원으로 총 4억팩이 팔려 초당 1.2팩이 팔렸다.

홍삼정 에브리타임의 매출액은 2013년 90억원에서 2015년 480억원, 2016년 1,000억원, 2021년 1,700억원 성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어릴때부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MZ세대(1980년대 초반 ~ 2000년대 초반 출생)의 라이프스타일에 잘 맞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홍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휴대와 섭취가 편리하도록 스틱형으로 제품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제품 출시 이후 정관장 매출에서 20~30대 소비자 비중이 2012년 5%에서 최근 15%로 증가했다.

한국인삼공사는 수출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21년 이 제품의 수출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으며, 특히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6개 지역에서 정관장 제품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중국어권 지역에서는 고려인삼을 노약자용 식물로 오랫동안 인식해왔고, 홍삼시장의 주산물은 뿌리인삼이었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2016), '더 킹, 영원의 군주'(2020) 등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이 제품을 먹는 장면으로 에브리타임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인식이 바뀌었다.

에브리타임 제품 라인업의 다양화도 성과를 거두었다.

홍삼농축액에 감초추출물과 프로폴리스를 첨가하여 쓴맛을 완화시켰으며, 지난해에는 부드러운 맛의 제품 매출이 2017년보다 4.3배 이상 늘었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일본에서 65%, 대만에서 69%, 말레이시아에서 22%, 베트남에서 29%, 미국에서 36%에 성장했다.

[홍보마케팅팀 최대영]

2022년 9월30일 ~ 10월10일

금산인삼축제

Geumsan Insam Festival

제 4 회

금산 인삼 축제

2022.9.30^(금) ~ 10.10^(월)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금산군



금산축제관광재단

20년근 응옥린인삼 9억동에 판매 8월1일부터 4일까지 제4회 응옥린인삼축제 개최



수령 20년 정도, 8개 가지, 0.9kg의 무게인 응옥린삼은 남짜미 지구(평남)의 인삼시장에서 9억동에 판매되고 있다.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열리는 제4회 응옥린인삼축제는 남짜미지구 인민위원회(평남)는 관광객들이 찾고 쇼핑할 수 있는 민속놀이, 전시공간, 농산물 전시 및 판매 등 많은 공연을 가졌다.

8월 1일 오전에는 95kg의 응옥린삼이 여러 종류로 판매되고 있었다. 1등급은 2억2000만동/kg, 2등급은 1억2000만 동/kg, 3등급은 9000만동/kg이다.

딘홍탕(37·짜린 코뮌 거주)씨가 20년 된 인삼 식물을 가져와 공모전에 참가해 판매용으로 전시했다. 인삼은 줄기,뿌리를 포함하여 무게가 0.9kg이다. 인삼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희귀한 인삼 뿌리라고 한다. 인삼은 여러 해 동안 꽃과 씨앗을 주는 8개의 가지를 키웠다. 이 인삼뿌리에 대한 미스터 탕의 입찰가는 9억동이다.

"누군가가 이 인삼에 7억5천만동을 얘기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년 이 인삼의 8개 가지에 서만 수백 개의 인삼 종자가 생산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삼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종자당 약 15만동의 가치가 있다. 저는 이 인삼의 가치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팔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져가서 우리 가족의 인삼밭에서 계속 재배한다."라고 탕씨는 말했다.

남짜미 지구 인민위원회 째두이등 위원장은 응옥린인삼축제가 지역 까동족과 세당족의 전형적인 전통문화를 알리고 소개하는 데 기여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경제 생활 동시에, 지역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에서 연결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관광객 전반동(호치민 출신 관광객)은 시장에 나와 인삼을 사서 사용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라고 공유했다. "지금은 응옥린삼을 파는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가짜 인삼이 난무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남짜미 지구에서 가족들



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고 체험했다. 이곳은 베트남의 인삼 수도이다."라고 둥 씨가 공유했다.

축제에서는 수십 개의 노점이 농산품, 특히 응옥린삼을 판매한다. 또한 짜남, 짜린, 짜깁 등의 응옥린삼 재배지에서 가져온 1~10년 산의 인삼경진대회는 모양(줄기, 뿌리, 덩이줄기, 꽃 등)이 아름답고 균형이 잘 잡혀있다.

경연대회 심사위원장인 호반테에 따르면, 판매되는 인삼 뿌리는 검사팀으로부터 세 번의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인삼이 대회에 참가하려고 할 때, 회사 관계자들이 검사를 할 것이다. 시장에 진입할 때 구점검단이 더 많은 것을 직접 점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한다." 인삼 공모전은 물론 시장에 가짜 인삼이 섞여 있지 않은데, 이는 응옥린삼의

이미지와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월 1일 저녁에는 제4회 응옥린인삼축제가 개막해 세당족 인삼송배 의식의 종자보존과 감사, 재현의 전반적인 과정을 징댄스 전통락밴드로 공연한다.

[국모닝베트남]

베트남, 응옥린삼 발전에 희망을 건다. “응옥린삼을 국가 브랜드로 전환” 세미나에서 밝혀



베트남 응웬 쑤언 폭 주식은 응옥린삼을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생계를 제공할 수 있는 국보로 언급하면서 응옥린삼이 베트남의 의약품 및 건강보조 식품 분야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서 공무원, 과학자 및 기업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최근 세미나에서 응옥린삼의 품질과 생산량을 개선하여 한국, 일본, 미국과 같은 인삼강국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Turning Ngoc Linh ginseng into a national brand[응옥린삼을 국가 브랜드로 전환]" 제목의 세미나는 8월 6일 Tuổi Trẻ(청년) 신문, 꽝남, 콘똌 지방인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삼 연구원, 브랜드 개발 전문가, 농업, 산업, 무역 및 관광 부처 대표와 인삼 기업 대표가 응옥린삼 농업 지역을 더욱 확장하고 국제 시장에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과 솔루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응웬 쑤언 폭 주식도 행사에 참석하여 베트남 응옥린산에서만 볼 수 있는 귀중한 식물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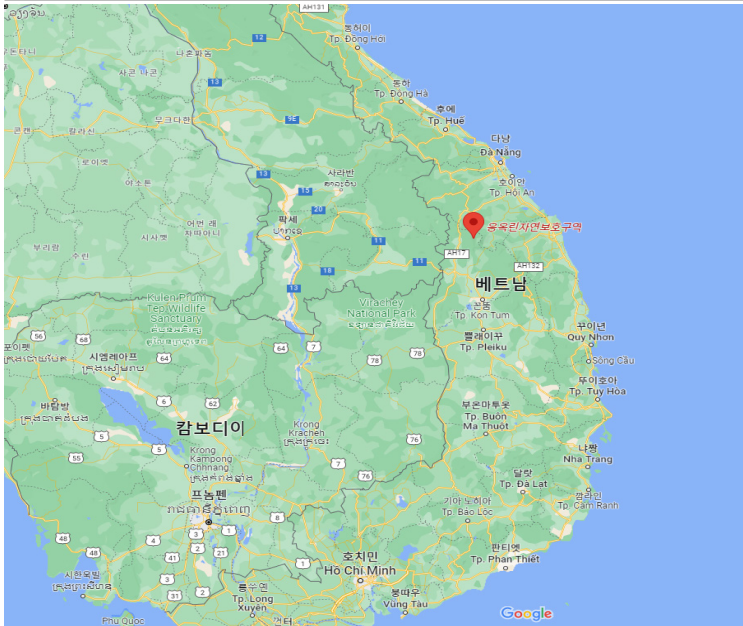
그는 응옥린 인삼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꽝남성과 콘똌성의 두 지역을 높이 평가했다.

응웬 쑤언 폭 주식은 응옥린 인삼을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생계를 제공할 수 있는 국보로 언급하면서 인삼이 베트남의 의약품 및 건강 보조 식품 분야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량의 인삼과 수백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일본, 중국과 경쟁하는 데 응옥린 인삼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인삼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베트남의 생산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웬 쑤언 폭 주식은 인삼을 생산성을 저해하는 날씨와 기후변화, 가짜 인삼의 출현, 특히 종자자원 보존에



있어 과학기술의 한계를 지적했다.

주석은 응옥린 인삼의 건강 및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10억 달러 규모의 인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쩡남성과 콘돔성의 두 지방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진지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삼의 보존과 발전을 동시에 우선시하며 양질의 제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삼 생산자와 연구 기관이 한국에서 배울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국내 일반 대중과 국제 시장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더불어, 순종 유전자 인삼 소스를 보호해야 하며 응옥린 인삼은 기업의 상표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이를 글로벌 인삼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선진 기술을 주문했다.

응웬 쑤언 폭 주석은 인삼산업에서 토지와 산림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임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두 지역이 응옥린 인삼을 국내 및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한 육종 전략을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방이 한국 모델에서 배워야 하고 베트남의 응옥린 인삼을 국가 브랜드와 보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쩡남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호 쩡부우에 따르면, 쩡남성의 1,600ha 이상의 산림이 기업, 가정 및 개인이 인삼 재배를 위해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삼 재배자들의 삶과 수입은 현재 수십억 동 규모의 많은 사업체를 통해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인삼을 국

민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산림청 산하 특수용도 및 보호 산림 관리부의 부 탄남 부국장은 인삼의 개발이 잠재력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료 개발에 대한 계획 부족, 종자 소스(양적 및 품질 모두) 부족, 제한된 광고, 판촉 및 브랜딩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쩡남의 농업 및 농촌 개발부 부국장에 따르면 현재 이성의 인삼 생산 면적은 1,000ha가 넘고 인삼 생산 및 보존을 위해 계획된 총 면적은 15,576ha로 알려졌다.

그는 고객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널리 거래되는 가짜 인삼과 정통 인삼 재배자를 포함한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지적했다.

한편, 인삼의 원산지 검사 및 모니터링에 적용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삼 생산을 핵심 경제 부문으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삼을 생산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생태 관광과 지역 사회 기반 관광 개발뿐만 아니라 산림 관리 및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진흥부 차장인 황민찌엔은 국내외적으로 응옥린 인삼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높이고 국제 시장에서 베트남 인삼 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프로모션 전략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응옥린 인삼은 1973년 콘돔과 쩡남의 두 성 사이에 위치한 응옥린 산의 숲에서 4명의 약사로 구성된 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그들은 한약재를 찾기 위해 중부 보전국에서 보냈었다.

응옥린 인삼의 줄기와 뿌리는 다른 인삼 종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사포닌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고려인삼과 중국삼에는 없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항균, 항우울제, 불안 감소 및 항산화 특성이 포함되며 항생제 및 당뇨병 약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삼 1헥타르를 재배하기 위해 약 30억 VND(거의 미화 129,000달러)를 투자하면 5년 후 수익이 300억 VND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응옥린 인삼을 재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옥린 인삼은 응옥린 산의 고도 1,200-2,000m에 있는 기후 및 토양 조건에서만 양질의 인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마케팅팀 최대영]

‘복 시즌’마저 인삼 판매 부진…“대책 시급”

경기침체·구매패턴 변화 등/수삼가격 지속적으로 침체 원료삼은 평년비 66%나 ‘뚝’/재배농가, 인건비조차 못 건져 농산물소비쿠폰 발행 등/정부의 소비촉진 행사 절실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인삼이 경기침체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복시즌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산자단체와 지역 인삼농협은 정부에 추석 전까지 농산물소비쿠폰 발행 등의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금산수삼센터 김관엽 대표에 따르면 복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인삼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금산군청이 고시한 인삼 가격은 수삼 10뿌리 기준 3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똑같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고시 가격보다 더 낮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홍삼 등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삼(파삼) 가격이다. 원료삼 한 채(750g) 가격은 5000원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가격인 1만5000원에 비해 66%(1만원) 하락한 상태로, 재배 농가들은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삼 업계에서는 이번 복시즌 인삼 판매 부진의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로 보고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며 금리 인상 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인 인삼의 구매를 꺼리고, 다듬고 세척하는 걸 번거롭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인삼 구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관엽 대표는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올해 복시즌에는 수삼센터에 다시 손님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상은 경기침체와 소비변화 등으로 작년과 비슷한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장의 인삼 재배 농가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여름 이후 20~30%의 가격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삼의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줘야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삼 판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하자 업계에서는 정부에 인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열린 ‘인삼 수급 및 가격문제 논의를 위한 생산자단체 간담회’에서는 인삼 가격 안정을 위해 원료삼 격리 자금 지원과 추석 전 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판매 지원, 각종 지역 인삼축제 할인쿠폰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9월 10일로 예년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정부의 빠른 결단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게 인삼 업계의 설명이다.

인삼 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는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지역 인삼축제가 다시 열리고, 추석도 예년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소비촉진행사를 지원해 주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정부의 빠른 판단과 실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즉각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전체 생산면적과 올해 예상 출하량 등을 기존 자료와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인삼농협과 인삼협회는 해당 자료를 취합해 농식품부에 제출했고,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 산업이 소비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정확한 생산 면적과 예상 출하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인삼가격정보(자료: 금산군청)

상기 인삼류 가격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삼의 전반적 인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자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금산군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삼류 가격동향(2022. 8. 17.)

4근 곡삼

30편

	36,600원
전시세	36,600원
등락	0
전년동기가격	39,600원

50편

	35,400원
전시세	35,400원
등락	0
전년동기가격	39,000원

75편

	34,200원
전시세	34,200원
등락	0
전년동기가격	37,200원

4근 직삼

15편

	43,200원
전시세	43,2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3,200원

25편

	42,600원
전시세	42,6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0,800원

5근 직삼

15편

	45,600원
전시세	45,6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3,200원

25편

	42,600원
전시세	42,6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0,800원

6근 직삼

15편

	50,400원
전시세	50,4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51,600원

25편

	44,400원
전시세	44,4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5,600원

미삼

상품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생건삼

상품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생삼(수삼)

10뿌리

	32,000원
전시세	32,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29,000원

20뿌리

	23,000원
전시세	23,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24,000원

30뿌리

	22,000원
전시세	22,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25,000원

40뿌리

	22,000원
전시세	22,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25,000원

50뿌리

	22,000원
전시세	22,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25,000원

70뿌리

	23,000원
전시세	23,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26,000원

금산 '월영산 출렁다리' 개통 후 외부방문객 전년 동기비 23% 증가 6월 말 현재 91만여명 찾아...대전·경기·충북·충남 순 도내 인기관광지 순위에서도 신규로 20위 이름 올려

2022년 6월 전년대비 방문자 증감률

(단위 : 명, %)

지자체	외부 방문자수	전년도 방문자수	전년 대비 방문자수 증감률
천안시 동남구	3,583,434	3,245,539	10.4
천안시 서북구	3,077,415	2,849,436	8
공주시	2,430,776	2,021,077	20.3
보령시	1,575,390	1,235,599	27.5
아산시	2,766,967	2,559,626	8.1
서산시	1,548,772	1,483,898	4.4
논산시	1,358,623	1,166,650	16.5
계룡시	431,083	385,157	11.9
당진시	1,991,281	1,627,850	22.3
금산군	911,667	742,291	22.8
부여군	925,611	804,346	15.1
서천군	870,529	738,524	17.9
청양군	371,447	350,029	6.1
홍성군	965,951	896,433	7.8
예산군	1,270,426	1,133,857	12
태안군	1,724,934	1,421,462	21.3

금산군 제원면 '월영산 출렁다리'가 개통 이후 외부방문객이 23% 증가하며 지역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충남도관광재단의 충남도 관광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말 현재 금산지역 내 외부방문객 수는 91만16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만2291명에 비해 22.8%(16만9376명) 증가했다.

거주지별로 보면 △대전시가 45.1%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7% △충북 7.1% △충남 6.9% 순으로 집계됐다. 금산의 방문객 수가 증가한데는 지난 4월28일 제원면의 월영산 출렁다리 개통 이후 내비게이션 데이터 순위가 충남에서 20위로 수직 상승했고, 하늘물빛정원(106위) 및 금산인삼약령시장(126위)과의 연계 관광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월영산 출렁다리는 무주탑 형태로 조성돼 다른 지역의 출렁다리에 비해 출렁거림을 더 느낄 수 있고 월영산과 부영산, 금강 상류를 45m 높이에서 조망할 수 있으며 원골 인공폭포 데크길과 금강 산책로가 조성돼 대전, 충북 등 인근 지역민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연관 검색어로는 '금산월영산출렁다리 맛집', '월영산출렁다리 맛집'이 다수를 차지해 출렁다리 방문 후 음식점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월영산 출렁다리는 6월 충남도 인기관광지 순위에서 몽산포해수욕장에 이어 20위에 신규 진입하는 등 금산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2022 6월 내비데이터 TOP 30

순위	관광지명	지역	전월대비 상승순위	전년대비 상승순위
1	대천해수욕장	보령시	-	-
2	유구색동수국정원	공주시	+201	+3
3	삽교호관광지	당진시	-1	-1
4	꽃지해수욕장	태안군	-1	-1
5	독립기념관	천안시	-1	+5
6	만리포해수욕장	태안군	+7	+1
7	동학사	공주시	+1	-1
8	삼길포항	서산시	-1	-4
9	해미읍성	서산시	-3	-
10	퍼스트빌리지	아산시	+1	+2
11	예당호출렁다리	예산군	-1	-3
12	수덕사	예산군	-3	+3
13	대천항	보령시	-1	+5
14	몽산포해수욕장	태안군	+3	-1
15	용두해수욕장	보령시	+70	+90
16	마곡사	공주시	+4	+3
17	신정호국민관광지	아산시	-3	-3
18	파라다이스스파도고	아산시	+17	+75
19	상화원	보령시	+11	+13
20	월영산출렁다리	금산군	-4	신규진입
21	장고항	당진시	-6	+6
22	아산스파비스	아산시	+35	+69
23	무창포해수욕장	보령시	-1	-6
24	서천특화시장	서천군	-5	-
25	솔라고CC	태안군	+2	-5
26	SG아름다운골프앤리조트	아산시	-1	-
27	공산성	공주시	-4	9
28	준장대해수욕장	서천군	-	-12
29	대천항수산물시장	보령시	-8	14
30	국립생태원	서천군	-12	17

월영산 출렁다리는 현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설날, 추석 당일은 휴무다.

금산군은 하동북천 및 용수골 꽃양귀비축제 등 출렁다리 주변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획을 추진 중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월영산 출렁다리로 인해 외부방문객이 늘어나 관광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찾아오는 금산관광의 입지를 굳혀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충청남도관광재단은 올해 7월 말부터 통신, 카드, 내비게이션 및 인터넷, SN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첫 동향자료를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말 충남지역의 관광 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2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WORLD PUNGGI GINSENG EXPO, YEONGJU, KOREA

2022. 9.30. ~ 10.23. (24일간) 경북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

9월 2일 '평창산양삼축제' 개최 제품 판매 · 경매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강원 평창군은 '2022 평창산양삼축제'가 9월2일부터 12일까지 봉평면 창동리 일원(평창군 임산물 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에서 개최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군의 우수한 산양삼을 홍보하고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행사장에는 산양삼 제품의 전시·판매 및 산양삼 경매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참가자

에게 산양삼 꿀스틱 및 산양삼 두유 등을 시음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양삼 제품 구매자 에겐 20년근 산양삼 등을 받을 수 있는 경품 추첨 응모권이 제공된다.

이성모 산림과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평창군 산양삼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산양삼 재배자들의 유통 판로 확대로 서로 상생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많은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지속적인 축제로 자리잡을 있을 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창군]

금산 재발전

금산인삼관을 찾아서

관음불봉 암벽에 빨간 열매가 달린 풀이 있으니
그뿌리를 어머니께 달여 드려라

금산에는 인삼에 관한 모든것을 볼수 있는 금산인삼관이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오는건 압도적으로 커다란 인삼병이다. 놀랍기도 신기하기도 해서 일단 기념촬영 부터 하게 만든다.



인삼 재배가 효심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벽화에 그려진 인삼 설화를 시작으로 금산인삼 역사관이 시작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 전 강씨성을 가진 선비가 아픈 어머니를 위해 진악산 관음굴에서 기도하던중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관음불봉 암벽에 빨간 열매가 3개 달린 풀이 있으니 그뿌리를 어머니께 달여 드려라." 라는 말을 듣고 그 풀을 찾아 어머니께 달여 드리니 어머니 병이 바로 나았다고 한다.

이 영험한 기운이 있는 풀의 씨앗을 개안리 마을에 심어 이웃들과 함께 키우게 된것이 바로 금산 인삼의 시작이다.

금산 인삼관에는 인삼이 천년 이전부터 있었다는걸 증명하는 천년인삼의 모형이 전시되어있다. 2010년 2월 부산 원광사에서 봉안되어 있던 목조보살좌상 복장유물을 공개 했는데 그 중에 인삼이 나와 탄소 연대 측정을 한결과 고려시대 것으로 밝혀져 1500년 고려 인삼의 역사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증거라 할 수있는 국립중앙 박물관에 있는 청자 철채 퇴화 삼엽문 매병은 고려 청자로 철채 상감 기법으로 삼엽을 표현했다. 상감기법은 12세기 전반부터 볼 수 있다.

인삼의 역사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됐으니 이제 인삼재배 방법이다. 금산에 산다고 누구나 인삼에 대해 아는건



아니다. 이론은 어느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시되어 있는 모형을 보니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예정지 관리를 시작으로 인삼씨 개갑시키기, 덧발짜기, 씨앗심기, 다시 이식하기, 삼장 꾸미기, 인삼축제의 기원이된 삼장제 지내기, 누가 흠쳐갈까 잘 지켜내기, 인삼캐기, 백삼으



로 만드려면 또 다시 깎고 건조하고 끝없는 일들이 계속이다. 인삼이 밭주인의 밭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인삼농부의 부지런함을 한없이 요구하는 것 같다.

매년 금산에서는 가을에 인삼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에 맞춰 금산에서 재배한 인삼을 가지고 인삼왕 시상식을 하는데 2층 전시관에 전시된 인삼은 벌써 몇 년째 그대로다. 몇 년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삼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인삼왕 선발대회를 하지 못했다. 올해는 제 40회 인삼축제도 개최하고 인삼왕 선발대회도 한다고 하니 많은 관람객이 금산 인삼관을 찾아오기를 바란다.

금산 인삼관을 둘러보며 인삼에 대해 알아보는 것 만으로도 건강해 지는 기분이다. [최정규 군민리포터]



하늘선물 금산인삼

면역력에 답하다



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하늘선물 금산인삼!
금홍마크와 G-마크로 정품을 확인하세요



QR코드로 제품정보 및 정품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산이 Geumsan
 Ginseng
뿌리입니다

발행일 2022. 08

발행인 김영수

발행처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전 화 041-750-1672

팩 스 041-750-1679

주 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